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풍기인삼축제 서 농지은행 사업 적극 홍보

윤애옥 기자 | 승인 2025.10.24 09:59 | 호수 1033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 알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노경환)가 지난 21일 ‘2025 풍기인삼축제’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축제를 찾은 많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은퇴를 돕고, 세대 간 농지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 지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사업 참여 요건, 신청 절차, 지급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부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노경환 지사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정부가 은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등 후계농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대표번호(1577-7770) 또는 영주·봉화지사(054-639-5021~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윤애옥 기자 okh7303@hanmail.net